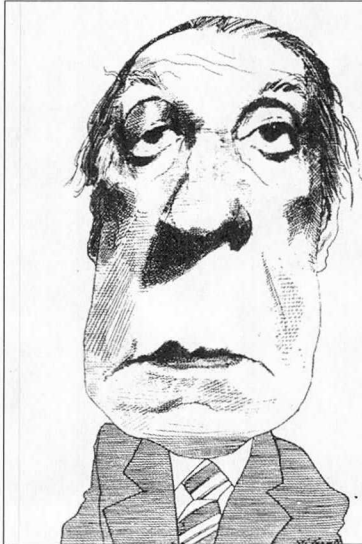


미궁 그리고 뒤집기의 상상력

‘비벨탑’ 같은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와의 대담

이남호

문학평론가 · 고려대 국어교육과 교수



“시간의 흐름은 한 줄기가 아니다. 수없이 많은 줄기가 있다. 그런데도 사람은 하나의 시간 줄기만을 이해할 뿐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소설은 하나의 플롯을 가지고 있다. 즉 세상이 하나의 시간 줄기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세상에는 여러 개의 시간 줄기가 있다.”

보르헤스(1899~1986).

《출판저널》로부터 ‘보르헤스와의 가상대담’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마감일이 임박해 어떻게 써야 할까 밤늦게 고민하다가 한 줄도 쓰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속에서 보르헤스가 찾아왔다. 저승나라에 ‘저널출판’이라는 전문서평자가 있는데 그곳에서 보르헤스에게 이남호를 만나 대담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아서 나를 찾아왔다는 것이다. 나는 대담 같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보르헤스가 조르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보르헤스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다. 다음은 그 이야기 가운데 잠을 깨서도 기억나는 부분을 대략 적어본 것이다.

끝없이 반복되는 피사체

보르헤스—당신은 나의 짧은 소설 8편을 읽고 나서 《보르헤스 만나러 가는 길》이란 책을 썼다. 그 책을 보니 내 소설에서 내가 의도한 의미를 제대로 풀어낸 곳도 제법 있지만, 당신 마음대로 해석해버린 부분이 많다. 내 소설을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남호—당신은, 가령 어떤 사람이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읽으면 그 작품은 또 하나의 새로운 《햄릿》이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돈키호테의 저자, 베에르 메나르》라는 작품에서 17세기에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와 19세기에 베에르 메나르가 쓴

《돈키호테》가 꼭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다른 작품이 된다는 것을 훌륭하게 설득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다. 셰익스피어를 읽는 모든 사람은 다 셰익스피어가 되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무수한 셰익스피어가 있고,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불멸한다. 내가 읽은 보르헤스의 소설은 보르헤스 당신이 쓴 보르헤스의 소설과 같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당신 생각 아니었던가?

보르헤스—맞다. 그냥 한번 물어봤을 뿐이다. 그런데 나는 당신의 책 《보르헤스 만나러 가는 길》을 읽고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내 책을 읽는 순간, 당신은 또 하나의 보르헤스다. 다시 말해 《보르헤스 만나러 가는 길》을 쓰는 동안 당신은 또 한 사람의 보르헤스가 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당신의 책을 읽을 때는 나는 이남호가 된다. 그렇다면, 보르헤스가 된 이남호를 다시 보르헤스인 내가 읽는다면, 이때 나는 보르헤스가 되는가 아니면 이남호가 되는가?

이남호—그건 간단하다. 무수한 보르헤스와 무수한 이남호가 존재하듯이, 보르헤스가 된 이남호도 무수히 존재할 수 있다. 당신이 내 책을 읽는 순간, 당신은 보르헤스가 된 이남호가 된 것일 뿐이다. 만약 당신이 내 책을 읽고 다시 글을 쓴 것을 또 내가 읽는다면, 나는 보르헤스가 된 이남호가 된 보르헤스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비유를 빌리면, 마주보는 거울 속에 끝없이 반복되는 피

사체의 모양과 흡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 당신은 보르헤스로 변한 이남호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 또한 이남호로 변한 보르헤스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셈이지. 보르헤스—내가 《환상지도》라는 작품에서 이야기한 ‘호뢰니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알고 싶다. 당신은 ‘호뢰니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가?

이남호—물론 믿는다. 호뢰니르에 대한 당신의 상상력은 정말 기발하다. 당신은 사람의 생각이 사물을 생산해낸다고 했고, 생각이 생산해낸 물건을 호뢰니르라고 했다. 그것은 생각으로 사물을 생산해 내는 방법이기도 하다. 가령 어떤 사람이 뒷산에 나무하러 가서 도끼를 잃어버렸다고 믿고 열심히 찾으면 도끼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도끼가 집에 또 있다. 집에 도끼를 두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간 것이다. 이 때, 집에 있던 도끼는 그냥 도끼지만, 산에서 찾은 도끼는 생각이 만들어낸 도끼 즉 호뢰니르인 것이다.

이러한 당신의 상상력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생각은 사물을 존재토록 할 수 있다고 나도 생각한다. 따지고 보면, 문명의 물건은 모두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다. 사람이 비행기를 머리 속에서 그려 보았기 때문에 오늘날 비행기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호뢰니르는 달리 말하면 상상력의 산물이다. 그것은, 상상력이 세계를 만든다는 당신의 생각을 압축하고 있는 개념이다.

《환상지도》라는 작품에서 당신은, 백과사전을 편찬하는 지하조직의 이야기를 했다. 새로운 백과사전을 만들고 나니 세상이 그 백과사전과 같아져간다는 이야기였다. 상상력이 세계를 만든다는 점을 당신은 탁월한 뒤집기의 상상력으로 보여주었다. 정말 이 세상은, 있을 수 있는 여러 개의 설계도 중에서 하나를 골라 만든 세상인 것 같다.

미궁과 같은 세상

보르헤스—인간이 만든 이 세상의 역사와 제도와 문명이 모두 호뢰니르라는 당신의 생각은 곧 나의 생각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란 미궁과 같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술한 현자가

이 세상의 비밀을 캐기 위해 노력했지만, 세상과 우주를 만든 신의 설계도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미궁이다. 그래서 인간은 나름대로의 설계도를 만들어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이 만든 설계도에 의해서 건설된 세상은 모두 호뢰니르인 것이다.

이남호—미궁이란 개념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겠지. 나 역시 멋진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그 개념을 《미로정원》이나 《비벨의 도서관》 같은 작품에서 흥미로운 비유로 설명했다. 즉, 《비벨의 도서관》에서는 우주를 하나의 도서관 또는 한편의 책으로 비유했다. 미궁으로 되어 있는 그 도서관에서 어떤 현자도 우주의 비밀을 담은 한편의 책을 찾아낼 수는 없다고 당신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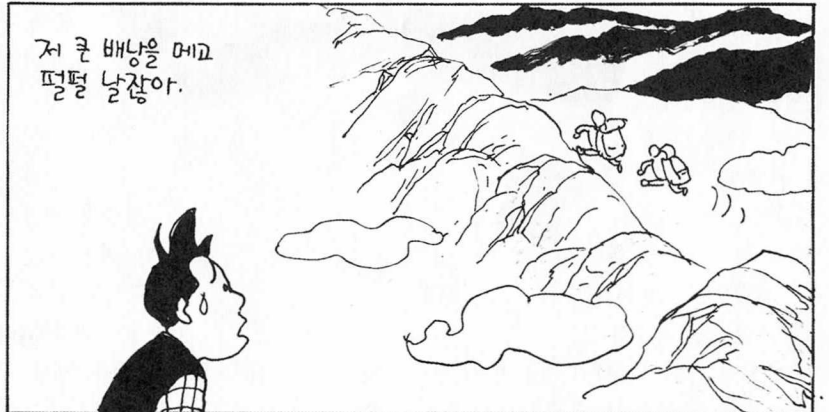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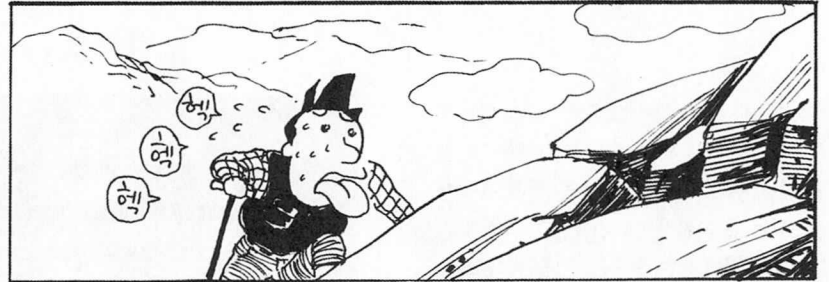
그런가 하면 《미로정원》에서는 끝없는 소설 또는 끝없는 정원으로 세상의 비밀을 비유했다. 그런데 나로서는 미궁을 시간 개념으로 설명한 《미로정원》이 더욱 그럴 듯 했다.

세상의 비밀과 당신 사상의 비밀은 당신의 시간 개념 속에 가장 잘 드러나 있다고 봐도 될 것이다. 당신은 시간을 하나의 선과 같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선이 교차하고 또 이중, 삼중으로 겹쳐서 짜여진 그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시간 개념 속에서라면, 모든 존재나 상황은 복수성을 띠게 될 것이다. 즉, 지금 당신과 대화하는 내가 존재하는 시간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시간 속에서 나는 당신을 알지도 못하고 한 평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보르헤스—그렇다. 시간의 흐름은 한 줄기가 아니고 수없이 많은 줄기가 있다. 그런데도 사람은 하나의 시간 줄기만을 이해할 뿐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소설은 하나의 플롯을 가지고 있다. 즉 세상이 하나의 시간 줄기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세상에는 여러 개의 시간 줄기가 있다. 가령 춘향이 광한루에서 이도령을 만나게 되는 시간의 이야기가 《춘향전》이지만, 실제 춘향이는 이도령을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다. 또 만나서 이별할 수도 있고, 그냥 함께 한평생을 살 수도 있다. 또 이도령이 과거에서 급제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춘향이의 삶이 꼭 《춘향전》과 같이 되라는 법은 없는 것이다. 내가 <허

초과 과장

박 시백



“세상의 비밀과 당신 사상의 비밀은 당신의 시간 개념 속에 가장 잘 드러나 있다고 봐도 될 것이다. 당신은 시간을 하나의 선과 같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선이 교차하고 또 이중, 삼중으로 겹쳐서 짜여진 그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시간 개념 속에서라면, 모든 존재나 상황은 복수성을 띠게 될 것이다.”



이남호

버트 콰인의 작품에 대한 고찰이라는 작품에서 끝이 없는 소설을 구상해본 것은, 실제 세상과 같은 소설을 쓰고 싶었기 때문이다.

‘비벨의 도서관’

이남호—거듭 말하지만, 당신의 시간 개념은 탁월한 통찰이다. 그런데 나도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당신의 생각대로 세상이 미궁이고 또 시간이 여러 겹이라면, 선과 약의 구분도 무의미하고 또 절대적인 가치도 없어져 버린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디에 의존해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는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인가? 보르헤스—결과를 알 수 없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당신이 친구와 타구시합을 한다고 하자. 그때 당신은 이길지 질지 알 수 없다고 해서 시합을 아무렇게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이 미궁이라고 해도 인간은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미궁을 들여다본 자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안다. 뿐만 아니라 미궁을 들여다본 자는 세상의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과 억울한 일에 대해서 여유와 겸손을 가질 수 있다. 헛된 욕심과 망상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많은 사람은 아마도 세상이 미궁임을 모르는 자이거나 아니면 미궁의 의미를 잘못 판단한 자일 것이다.

이남호—당신 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영원한 미궁이라

면 그것은 인간들에게 허무를 준다. 미궁의 막막함 속에서 어떤 인간적 노력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의 비밀에 대한 당신의 탁월한 통찰과 지혜에 감탄하면 할수록 허무 또한 짙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진정 지혜로운 자는 허무주의자일 수밖에 없을는지 모르겠다.

이제 시간도 많이 흘렀고, 나도 피곤하다. 이쯤해서 대답을 마쳤으면 좋겠다. 주로 당신이 나에게 물었지만, 나는 당신의 생각만 짐작해서 말한 셈이 됐다. 어차피 보르헤스와 이남호의 대답이니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의 생각이라도 충분할 것이다. 이제 당신도 저승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좋겠다. 보르헤스—대답에 응해주셔서 고맙다. 이 다음에 당신이 저승나라로 오게 되면,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아니, 또 다른 시간 속에서는 당신과 내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간이 만든 세상의 설계도에 대해서보다는 신이 만든 세상의 설계도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나나 당신같은 사람에게는 점점 재미없는 세상이 돼가고 있는 듯하다. 세상이 재미없을 때는 내가 지은 ‘비벨의 도서관’으로 언제든지 놀러 와도 좋다. 그럼 나는 이만 돌아가겠다. ❖